

# 재일 한인 잡지 소재 시문학과 비평문학의 현황과 의미\*

- 『조선문예』, 『한양』, 『삼천리』, 『청구』를 중심으로

하 상 일\*\*

차 례

- |                                   |                               |
|-----------------------------------|-------------------------------|
| I. 머리말                            | III. 재일 한인 잡지 소재 비평문학의 현황과 의미 |
| II. 재일 한인 잡지 소재 시문학과 비평문학의 현황과 의미 | IV. 맺음말                       |

## I. 머리말

최근 우리 문학 연구의 방향은 '한국문학'이라는 지역적·언어적 한계를 넘어서 '한민족문학'이라는 보다 넓은 범주에서 아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식민지의 억압과 모순을 피해 만주로 연해주로 망명 혹은 이주를 하거나 극심한 궁핍과 일제의 감시를 면하기 위해 일본으로 밀항을 했던 상당수의 민족구성원들은, 해방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낯선 이역의 땅에서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HS0013)

\*\* 동의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온갖 꾀박과 설움을 겪으며 너무도 힘겨운 삶을 이어가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재외 한인 1세대들은 한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결코 잃지 않았으며, 오히려 민족의 정체성을 다음 세대로 물려주기 위한 정신적 고투를 보여주었다. 재외한인문학은 바로 이러한 민족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고, 민족구성원으로서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굳은 의지의 결정체였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역사는 특정한 시대와 권력에 의해 선택과 배제를 경험하면서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채 왜곡된 기술로 남아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문학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당대 정치권력에 종속된 문인권력에 의해 조작된 이데올로기적 허구성은 문학사의 단절과 왜곡을 심화시켜 지금까지도 진정한 문학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분단이데올로기에 의해 획일화된 남한문학사의 불구성은 북한문학사, 재외한인문학사를 아우르는 한민족문학사의 차원에서 거시적 통합을 이룰 때 비로소 문학사로서의 온전한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sup>1)</sup> 이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문학 연구는 북한문학과 재외한인문학을 아우르는 한민족문학의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해방 이후 재일한인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실증적 자료조사와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해방 이후 재일한인문학의 전반적 성격과 의미를 개관하는 데 목표를 두고자 한다. 연구대상으로는 개별 작가나 시인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지금까지의 재일한인문학연구의 방향과는 달리, 재일한인들이 주축이 되어 일본 현지에서 직접 발간한 잡지에 수록된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는 재일한인사회 지식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집념이 투영된 잡지의 전반적 성격과 그 속에 수록된 문학작품의 유기적 관련성에 주목함으로써 재일한인문학을 담론적 지형 속에서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해방 이후 재일 한인 관련 잡지를 대략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

1)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연구성과로, 김종희 편, 『한민족문화권의 문학』(국학자료원, 2003), 이명재 외,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한국문화사, 2004), 한국문학회 엮음, 『해외문화 접촉과 한국문학』(세종출판사, 2003), 한국문학회 엮음, 『일본문화 접촉과 한국문학』(세종출판사, 2004) 등이 있다.

조선, 『조선문예』, 『한양』, 『삼천리』, 『청구』, 『아리랑』, 『우리』, 『우리생활』, 『해협』, 『한국문예』, 『사이』, 『현대코리아』, 『마당』, 『민도』, 『진달래』, 『문학예술』, 『친화』, 『코리아평론』, 『코리아 마이너리티 연구』, 『국민총력』, 『국민문학』, 『호르문문화』, 『중소리』, 『겨레문학』, 『제주도』, 『봉선화』, 『자유조선』, 『나그네』, 『도라지』. 이처럼 해방 이후 재일 한인 사회에서는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정치와 사회를 전반적으로 다룬 상당히 많은 잡지와 동인지들이 출간되었다. 이 가운데 본 연구는 『조선문예』, 『한양』, 『삼천리』, 『청구』를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들 잡지는 각각 해방이후~1940년대 후반, 1960년대 초반~1980년대 중반, 1970년대 중반~1980년대 후반,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에 걸쳐 발간된 것으로, 재일한인잡지의 통시적 성격과 재일한인문학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아주 유효한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조선문예』, 『삼천리』, 『청구』의 경우는 일본어로 간행된 잡지였고, 『한양』은 한국어로 간행된 잡지였다는 점에서 언어적 측면에서의 차이가 드러나고, 직접적으로 잡지 발간에 관여한 편집진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동일한 관심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일정한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조선문예』, 『한양』이 재일 한인을 주요 필자로 한 잡지였던 데 반해 『조선문예』, 『삼천리』, 『청구』는 일본 필자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따라서 이들 잡지를 무조건 통시적 연속성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정치적·역사적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대한 문학적 실천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는 점에서, 이들 잡지는 재일 한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의 실현이라는 역사적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공통된 지향성을 지녔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이들 잡지에 수록된 문학작품 가운데 시문학과 비평문학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개관하고 그 문학사적 의미를 찾는 데 주력함으로써 해방 이후 재일 한인 시문학과 비평문학에 대한 총괄적 이해를 모색하고자 한다.

## II. 재일 한인 잡지 소재 시문학의 현황과 의미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재일한인문학연구는 대체로 소설문학을 중심으로 논의 되어 왔다.<sup>2)</sup> 식민지사회의 구조적 억압과 모순 속에 놓여 있었던 민중의 현실과 해방 이후의 혼란과 재일 한인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의 고민 등을 생점화한 재일한인문학의 중심 주제는 개인의 정서나 감각적 비유로 표현되는 시문학보다는 인물과 플롯에 의해 구성되는 서사적 구성물로서의 성격에 더욱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주 4·3항쟁을 비롯한 한국의 역사적 현실을 제재로 한 문학창작이 두드러졌다는 점도 재일한인문학이 소설문학 중심의 논의가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식민지시기 장혁주, 김사량<sup>3)</sup>의 소설에 이어 해방 이후 김달수<sup>4)</sup>, 이은직 등의 소설은 재일한인문학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 
- 2) 지금까지 논의된 재일한인문학연구의 대상을 살펴보면, 소설가의 경우 김사량, 장혁주, 김달수, 김석범, 이회성, 김학영, 이양지, 유미리, 현월 등 그 범위가 비교적 넓은 반면, 시인으로는 김시중, 종추월 등과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문예동) 소속 시인들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비평문학의 경우 안우식, 윤학준, 임전혜, 김학현 등의 활동이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고, 『한양』의 비평을 중심으로 장일우, 김순남 등의 비평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있을 뿐이다.
- 3) 김사량은 식민지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우회적 글쓰기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저항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갔던 데 반해, 장혁주는 일본어 글쓰기를 통해 적극적인 친일협력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친일문학인으로 변절하였다. 이 때문에 재일 한인들에게 김사량은 저항문인의 상징으로, 장혁주는 친일문인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이런 점에서 재일 비평가 임전혜는, “장혁주와 김사량의 모습은 식민지 문학자의 두 가지 길, 즉 굴욕과 반항을 뚜렷하게 부각했다. 김사량을 생각할 때 자국의 억압자에게 무릎을 꿇은 장혁주의 전략의 행적은 더욱 선명해진다” (『장혁주론』, 『문학』 1965년 11월, 92쪽)고 밝히기도 했다.
- 4) 김달수는 1919년 경남 창원에서 몰락한 농민의 가정에서 태어나 1925년 가독들이 먼저 일본으로 건너간 뒤 할머니의 손에 의해서 자라다 1930년 10세때 형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의 문학은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에 이르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일본 내에서 온갖 차별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재일 한인들의 삶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주력했다. 재일 한인 1세대에 속하는 그는 김사량에 이어 재일한인작가로서는 두 번째로 1953년 제30회 아쿠타가와와상(芥川賞)의 후보에 「현해탄」으로 오르는 등 재일 한인 문학을 일본문단에 알리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아니라 이들 작가들은 해방 이후 재일 한인들의 문학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는데, 그 성과는 『민주조선』<sup>5)</sup>, 『조선문예』 등의 잡지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조선문예』는 1947년 10월 창간된 종합문예지로, 박삼문이 발행·편집을 맡고 김달수, 이은직, 허남기, 강순 등의 재일 한인 1세대 문인들을 중심으로 문학작품이 발표된 잡지이다. 창간호에는 허남기, 강진철의 시, 윤자원, 이은직의 소설, 이석주의 평론, 김달수의 산문 등이 실려 있다. 그런데 『조선문예』에 발표된 시문학의 전모는 현재까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조선문예』는 1948년 11월까지 발간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필자가 일본 동경 소재 근대문학관에서 입수한 자료는 모두 4권에 불과하고 1권의 목차만 추가로 확인한 실정이다.<sup>6)</sup> 이 4권에 발표된 시문학 현황만을 살펴보면, 창간호에 허남기의 「잡초원(雜草原)」, 강진철의 「하(河)」, 두 편이 수록되어 있고, 1947년 11월호와 1948년 2월호에는 시작품이 발표되지 않았고, 1948년 4월호에 강현철의 「등(燈)」이 발표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몇 편의 작품만으로 『조선문예』에 나타난 시문학의 성격과 의미를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잡지는 재일 한인 시문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바로 허남기, 강순 등의 시인이 이 잡지의 편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해방 이후 재일 한인 시문학 활동의 초석을 닦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김석범의 증언<sup>7)</sup>에도 드러나듯이 해방 이후 재일 한인 시

5) 1946년 4월 창간되어 1950년 7월까지 통권 33호 간행되었다. 발행인은 조진용, 한석철, 윤병옥 등으로 이어졌고, 10호의 경우 『문화조선』이란 잡지명으로 발간되었다. 출판사 역시 여러 번 바뀌었는데, 민주조선사(1-3호), 조선문화사(4-9호), 문화조선사(10호), 조선문화사(11-22호)로 잦은 교체를 거듭하다 23호부터 민주조선사로 중간호까지 발간했다. 잡지의 편집책임은 김원기(1호), 김달수(2-24호)가 맡았고, 25호부터는 발행인 윤병옥이 편집을 겸하였다.

6) 입수한 자료와 목차의 발행연도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1947년 10월(창간호), 1947년 11월, 1948년 2월, 1948년 4월, 1948년 7월.

7) “전후(戰後)부터 지금까지의 작가는 재일 조선인의 존재와 함께 일본어로 문학행위를 계속해 왔고, 지금은 하나의 사회적 성격을 부여받게 되었다. 예전에는 장혁주나 김사량으로 대표될 정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김달수, 이회성, 고사명, 김학영, 정승박, 김태생, 김석범 등의 소설가, 허남기, 김시중, 강순 그리고 최근 사망한 오림준 등의 시인이 있다. 또 창작은 아니지만 문예평론가로 안우식, 윤

문학의 흐름은 허남기, 남시우, 강순, 김시중, 오림준 등으로부터 출발하여 김윤, 정영훈, 박일동, 정화수 등에 이르는데, 『조선문예』는 그 초기 활동의 양상으로 허남기<sup>8)</sup>와 강순<sup>9)</sup>의 시가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재일 한인 시문학 활동이 그 양과 질의 측면에서 동시에 두드러진 면모를 보인 것은 1962년 창간된 『한양』에서 비롯된다. 『한양』은 1962년 3월 일본 동경에서 창간되어 1984년 3·4월호(통권 177호)로 중단된 재일 한인 한글 잡지로, 1960년대 4월혁명 이후 변화된 한국문학의 지형과 아주 밀접한 관련 속에서 간

---

학준, 임전혜, 김학현 등이 활동, 그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 김석범, 『在日朝鮮人文學』, 『在日의 思想』(筑摩書房, 1981), 119쪽. ; 이재봉, 『재일 한인 문학의 존재 방식』, 한국문학회 엮음, 『일본문화접촉과 한국문학』, 앞의 책, 157쪽.

- 8) 1992년 평양출판사에 발간된 허남기의 시선집 『조국에 바치어』의 시인 소개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영예로운 ‘김일성훈장’ 수훈자이며 ‘김일성상’ 계관인인 시인 허남기는 1918년 6월 24일 경남 구포에서 출생하여 부산제2상업학교를 거쳐 일본땅으로 건너가 태평양미술학교, 일본대학 예술학원 등에 일시 적을 두었다가 중앙대학 법과를 졸업했다. 8·15 이후 재일 교포조직인 ‘총련’의 문화부장, 부의장, 문예총위원장 직을 역임하면서 『허남기시선』을 비롯한 10여권의 저서를 남겼다. 일본땅에서 한생을 오직 조국의 자유와 통일을 위해 불타던 그의 심장은 1988년 11월 17일에 멎었다. 그가 열렬히 사랑하고 옹호한 어머니조국은 사랑하는 아들의 유골을 거두어 국가장지인 신미리에국열사릉에 안치하고 후손들이 그의 이름을 길이 잊지 않도록 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서경식의 『소년의 눈물』(돌베개, 2004)에도 그의 시집 『조선의 겨울이야기』 가운데 「영산강」이 소개되어 있다.
- 9) 필자가 확인한 4권의 잡지에서는 강순의 시가 수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1948년 4월호 안쪽 표지에 있는 조선어판 『조선문예』 3월호 광고에 의하면 김달수, 강순, 김원기 등이 집필했음을 소개하고 있다. 이 광고문구로 미루어 당시 『조선문예』는 일본어판과 한글판이 동시에 출간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으로서는 한글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조선문예』 전질과 한글판이 확인된다면 해방 이후 재일한인문학의 성격을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 강순은 1918년 강화 출생이고, 생전에 국문시집 4권(『조선부락』 <1953>, 『불씨』 <1956>, 『강순시집』 <1964>, 『강바람』 <1984>)을 출간했고, 일문시집 1권 『なるなり』(1970), 번역시집으로 『김지하전집』(1974), 신경림의 『농무』(1977),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1979), 조태일의 『국토』(1980), 이성부의 『우리들의 양식』(1981), 양성우의 『겨울공화국』(1978) 등이 있다. 이처럼 그는 해방 이후 재일 한인 시문학과 한국의 시문학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 가장 대표적인 재일 한인 시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행된 잡지이다.<sup>10)</sup> 『한양』의 편집인 겸 발행인은 김인재였고, 잡지의 구성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시, 소설, 수필, 평론 등의 문학작품과 당대의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문 및 시론(時論) 등 재일 한인들의 의식과 정서를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종합지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양』은 당시 변혁기에 있었던 1960년대 한국사회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님으로써 한국문학의 변화와 성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성격 때문에 『한양』은 1974년 2월 ‘문인간첩단사건’에 연루되어 국내로의 유입이 금지되었고, 국내에 소장된 상당량의 잡지도 불온서적이란 이유로 소실되어 지금까지도 국내에서는 1974년 이후 『한양』의 실상을 거의 확인하기가 어렵다.<sup>11)</sup> 또한 현재 『한양』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은 1960년대 이후 한국문학에 대한 총체적 해명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강하게 부각되므로 재일 한인 잡지로서의 『한양』의 성격과 재일한인문학으로서의 『한양』 소재 문학작품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한양』을 연구대상으로 하되 국내 거주 필자들의 활동상황은 제외하고, 재일한인문학이라는 특정한 관점에서만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10) 지금까지 발표된 『한양』에 대한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허윤희, 「1960년대 참여문학론의 도정」, 상허학회 편, 『희귀 잡지로 본 문학사』(깊은샘, 2002) ; 박수연, 「1960년대의 시적 리얼리티 논의 - 장일우의 『한양』지 시평과 한국문단의 반응」, 『한국언어문학』 제50집(한국언어문학회, 2003) ; 하상일, 「1960년대 문학비평과 『한양』」, 『어문논집』 제50호(민족어문학회, 2004) ; 하상일,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 연구」(부산대 박사논문, 2005) ; 김유중, 「장일우 문학비평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7집(한국현대문학회, 2005) ; 이현홍, 「『한양』 소재 재일한인문학의 연구 방향과 과제」, 『한국민족문화』 제25집(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5).

11) 필자는 2006년 1월 일본 동경 소재 대학의 도서관 서고에서 『한양』 전모를 확인하여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당시 발행과 편집을 주도했던 김인재 선생과 주요 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김운 시인을 만났다.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양』의 실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었으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김인재 선생이 당시 상황과 필자들의 면면에 대해 끝끝내 침묵함으로써 여전히 『한양』은 미궁 속에 있는 상태다. 다만 김인재 선생의 말을 통해 조심스럽게 추정해보면, 당시 시, 소설, 비평 등을 썼던 상당수의 고정 필자들은 필명으로 활동한 국내 문인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한양』 소재 제일 한인 시인 및 작품 현황

시인	주요 작품	총 편수
강상구	애정, 존재의 시, 심야, 성묘	5
경련	고국시초, 길목, 어머니 조국이며, 조국, 현해탄, 고국의 얼굴, 고향 집 문턱, 광주, 그리움, 낙동강, 무등산에서, 봄비 오는 날, 우리 겨레는 하나, 오너라 4월이며, 조국통일행진에 부쳐, 통일로	146
김리박	오는 해 다짐, 한 길, 장편서사시 「열」, 정월	12
김성호	그러나 다시 일어서야 할 광주여, 김대중, 문폐, 상실의 팔월, 새날의 아침에, 울분, 이방에서, 재회, 편지, 해매는 이리	25
김승신	광주는 고발한다, 낯이여, 당위에 내 나라가, 우리의 대오, 충고	13
김운	가을, 고목, 광장의 결의, 그리움, 길, 나의 날은, 또 새해를 맞으며, 바람과 구름과 태양, 새로운 날을 위하여, 어머니, 외로운 묘비	53
김인숙	별아, 민주의 어머니, 시혼, 아아! 오월이며, 피의 소리 함께 모아	16
김잔	김재규의 유령, 대한민국, 미국에 시집간 사내들, 편두통	7
김해정	가장 굳센 것, 사월, 이국의 밤거리에 비는 내리고, 휴전선	6
박기원	꽃의 사투리, 몸부림치는 태극기, 조국이 없던 청춘, 팔월의 태양	7
박일동	장시 「귀환자」, 기도, 기원, 내 삶은, 다도해의 점경, 동물시초, 맹서의 노래, 민중, 벗에게, 봄의 역사, 분노의 시, 4·19의 증언, 4월은, 서사시 「어머니 나라」, 선언, 시골역, 재판정에서, 저주의 시	109
박찬문	가을, 봄, 설야, 세월, 여름	5
신재현	그대에게, 4·19의 용사들에게, 사냥, 삼월이면, 푸른 하늘 아래서	9
윤동호	느티나무, 다시 사월은 오는가, 멀미가 나는 집, 씨앗의 노래, 염원, 우레, 종, 철쭉꽃, 청개구리, 팔월, 풍자, 한 치의 뜨락	42
이세방	복엽채송화, 서시, 조국, 초상, 한국의 모든 지식인들에게	8
이승운	古陶賦, 월인천강지곡, 미륵보살반가사유상운	6
이유진	저 미치게 푸른, 광주 이후, 새장 옆에서, 역사 앞에서, 옛노래	15
정영훈	36년, 3월에, 4월의 광장, 고독의 종말, 고향에의 서정, 광복 25주년, 광주의 증언, 달밤에, 무궁화, 바다, 불타버린 5월, 사랑하라 동포여, 사월시초, 소녀의 역사, 아메리카 윤리, 안개낀 한국의 정치가도	144
조종현	낯이 우는 낙동강, 얼어붙은 강물, 태극기 복판에 꽂고	6
한성	경고, 광주의 5월, 그날의 사진 앞에서, 금남로, 노래, 레이건, 불타는 성조기, 살아있는 광주, 지옥행, 팔월의 태양, 한국의 예절	26
황명동	그 알듯한 생물, 그날만은 믿으면서, 해협, 아! 그래도 당신은	5

『한양』 소재 제일 한인 시인들의 작품 현황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다만 이십여 년 동안 『한양』에 발표된 시작품의 수가 약 2천여 편에 달하므로, 여기에서는 『한양』 발행 전 기간에 걸쳐 최소한 5편 이상 발표한 시인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고, 국내 시인이거나 국내 시인으로 추정되는 대상은 일단 제외하였다.<sup>12)</sup> 이 외에도 국내에서 확인할 수 없는 상당수의 시인들이 5편 이내의 작품을 발표하였고, 국내 시인의 경우에는 고원, 김남석, 김소영, 김어수, 김용호, 김정숙, 김지하, 김지향, 박두진, 박보운, 박봉우, 박일송, 박정은, 신동집, 신석정, 안도섭, 안장현, 양상경, 양성우, 유경환, 이복숙, 이상화, 이설주, 이종석, 이준범, 이태극, 장수철, 조태일, 최승범, 홍윤숙, 황갑주 등이 적게는 5편 내외, 많게는 20여 편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한양』 소재 시문학은 그것이 국내 시인의 작품이든 재일 한인 시인의 작품이든 한민족문학이라는 차원에서는 엄청난 양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한민족문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잡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발표된 시작품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정리될 수 있는데, 첫째, 재외 거주 한국인으로서 고향과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 둘째, 한국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참여의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12) 이들 중 몇몇은 지금까지도 사실상 실체를 알 수 없는 시인들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당시 발행인이었던 김인재 선생의 말을 유추해보면 국내 시인일 가능성도 다분하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만약 국내 시인일 경우 누구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일단 재일 한인 시인 목록에 포함하기로 한다. 이들 가운데 지금까지 재일 한인 사회에서 민단을 중심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인이 김운이다. 김운은 1932년 경남 남해 출신으로(『한양』의 발행 겸 편집이었던 김인재 선생 역시 고향이 남해라는 점에서 당시 동향으로서의 유대가 남달랐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인연으로 『한양』에 50여 편의 시를 발표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진주농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을 중퇴했다. 1950년대 부산지역에 모여 있던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발간된 『신작품』의 동인(고석규, 천상병, 송영택, 김재섭, 김소과, 이동준 등)으로 활동했는데, 1952년 3월부터 1954년 12월까지 총 8권 가운데 그가 시를 발표한 것은 2집에 『호수』, 3집에 『나무』, 4집에 『가을』을 발표했고, 5집부터는 동인 명단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가 없다. 당시에는 그의 본명인 김동일(金棟日)로 시를 발표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을 2006년 1월 일본 동경에서 김운 시인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그동안 『신작품』 동인 가운데 확인이 되지 않은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일본으로 건너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김운(金潤)이라는 필명으로만 활동하여 이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는 『현대문학』을 통해 시작 활동을 시작했고, 시집 역시 모두 현대문학사에 출간되었는데, 『명든 계절』(1968), 『바람과 구름과 태양』(1971)이 있다.

셋째, 서정시의 본질에 충실하여 일상과 자연의 풍경을 내면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첫째와 둘째의 경우인데,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는 첫째의 경향이 비교적 두드러지는 데 비해, 197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둘째의 경향이 점점 우세해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1974년 문인간첩단 사건 이후 국내외의 인적 교류가 단절되고 국내로의 유입마저 막아버리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반정부적이고 반미적인 노선을 더욱 노골화한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 결과 1960년대에는 4월혁명을 제재로 한 시의 모습이 두드러졌었는데, 70~80년대에 이르면서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5월 광주의 참상과 전두환 정권의 군사적 도발, 레이건 미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비판 등 한국의 정치현실에 대한 더욱 직접적인 비판과 현실참여의 성격을 드러냈다.

『삼천리』는 1975년 2월 1일 발행인 이철, 편집인 이진희, 편집위원 김달수, 윤학준, 강재인, 박경식, 김석범 등에 의해 창간되어 1987년 5월 1일 제50호를 끝으로 종간한 계간종합문예지이다. 역사학자와 문학인들로 구성된 편집진들의 면면에서 알 수 있듯이, 『삼천리』는 한국의 역사적 현실을 예의주시하면서 한일관계, 조선의 역사, 조선의 문화, 재일 조선인들의 실상 등에 대한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글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특히 문학의 경우에는 당시 「오적」 필화사건으로 감옥에 있었던 김지하의 문학을 창간호 특집으로 삼은 것을 비롯해서 그의 재판기록과 증언내용, 김지하 구명을 위한 주변인물들의 호소문 등 그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이는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염원과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김지하의 문학세계를 통해 우회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진다.

『삼천리』에 발표된 재일 한인 시인은 모두 세 사람이다. 김시중이 1975년 봄 창간호부터 1977년 여름호까지 총 10회에 걸쳐 연재한 「猪飼野詩集」과 이철의 시 32편, 황정삼의 시 1편이 바로 그것이다. 그 외에 발표된 시는 앞서 언급한 김지하의 시를 번역한 것과 일본의 대표적인 한국문학연구자인 오무라 마쓰오(大村益夫)가 정리한 「대역 조선근대시선」이 1983년 여름호부터 1986년 겨울호까지 총 14회에 걸쳐 연재되어 김소월, 한용운, 박용철, 박팔양, 이은상, 이병기, 조지훈, 박두진, 윤동주, 이육사 등 우리 근대시인들을 두루 번역 소개하였다.

『삼천리』에 발표된 재일 한인 시인 세 사람의 작품목록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 2> 『삼천리』 소재 재일 한인 시인 및 작품 현황

시인	작품명	발표연도
김시종	猪飼野詩集(1)~(10)	1975년 봄호 ~1977년 여름호
이철	해후, 백야의 팔월, 초망의 어머니, 울타리, 나란히 있는 두 배, 남가일몽, 마음의 비석을 새기는 것, 다시 어느 3월은 돌아오고, 돌사람, 보표의 행방, 귀심, 구름, 그 길, 철쭉, 9월을 생각한다, 기원, 노심한 암호, 대춘부, 제야, 향적, 광주는 고발한다, 갈앙의 노래, 유대, 모색, 세단, 조사, 래의, 되살아나는 날, 찬가, 피리소리, 귀성, 불망	1975년 여름호 ~1987년 여름호
황정삼	눈빛	1975년 가을호

이 세 사람 가운데 이철은 『삼천리』 발행 전 기간에 걸쳐 꾸준히 시를 발표했는데 『삼천리』의 발행인이었다는 점 외에는 특별히 알려진 바가 없고, 단 1편을 발표한 황정삼에 대해서는 더더욱 소개된 바가 없어 지금으로서는 일단 논외로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일 한인 시문학의 대표적 시인인 김시종이 발표한 『이카이노猪飼野 시집』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시종은 1929년 생으로 해방 직후 오사카로 건너가 지금까지 ‘재일한다’<sup>13)</sup>는 것의 실존적 의미 탐구와 미래에 대한 모색을 앞장서 주창해 온 시인이다.<sup>14)</sup> 『이카이노 시집』

13) ‘在日’을 “일본에 산다(日本ですむ)”, “일본에 있다(日本にいる)”라고 하지 않고 ‘재일한다(在日する)’고 하는 경우 ‘재일’이라는 것은 단순하고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복잡하고 적극적인 의미가 된다. 즉 ‘재일한다’라는 말 속에는 적극적 행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그들 스스로가 주변부의 존재이거나,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하나의 주체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내세우는 것이다. 이재봉, 앞의 논문, 162~163쪽.

14) 그는 허남기와 더불어 재일 한인 1세대 시인으로 1951년 10월에 결성된 오사카 ‘재일조선문화인협회’에서 발간된 종합지 『조선평론』에 참가했고, 1952년 2월 젊은 시인들을 주축으로 만든 시 동인지 『진달래』 창간을 주도하기도 했다. 1955년 첫시집 『지평선』을 출간한 것을 시작으로 1957년 11월 두 번째 시집 『일본풍토기』를 발간했고, 세 번째 시집으로 기획되었던 『일본풍토기II』는 조총련과

은 오사카의 재일 한인 밀집지역인 이카이노의 조선인 민중들의 활기찬 생활의 모습을 유머와 풍자를 통해 표현한 작품이다. 즉 이카이노의 현실적 풍경을 통해 재일 한인들의 민중으로서의 실상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재일한다'는 것으로서의 일관된 시선과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그의 시는 아름다운 산하의 조선을 지칭하는 『삼천리』라는 제목과 같이, 지금은 일본 지도에서 사라진 지명이 되고 말았지만, 그곳 조선인들의 구체적 삶을 통해 이국 속의 조선, 혹은 또 다른 고향으로서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는 1989년 8월에 창간되어 1996년 2월까지 통권 25호 발간된 잡지이다. 앞서 발간된 『삼천리』의 문학정신을 이어받은 잡지로, 『삼천리』의 편집위원이었던 이진희, 강재언, 김달수를 비롯하여 강상중, 안우식, 문경수, 위양복 등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삼천리'가 '조선반도의 남북을 합한 하나의 조선'이라는 의미를 표상했던 것처럼, '청구' 역시 '예로부터 조선을 가리키는 이름 가운데 하나'를 뜻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두 잡지 모두 한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염두에 둔 재일 한인들의 사회·문화적 실천을 담은 공통된 지향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삼천리』가 재일 한인 1세대를 주축으로 발간된 잡지인데 반해, 『청구』는 제2~3세대를 위한 언로(言路)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재일 한인 사회의 세대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교(架橋)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청구』의 경우 재일 한인 시인들의 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삼천리』의 연재를 이어받아 오무라 마쓰오(大村益夫)가 「근대조선시선」을 1989

---

의 갈등, 『진달래』의 해산 등을 겪는 와중에 중단되었고 그 원고마저 분실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세 번째 시집은 1970년에 와서야 장편시집 『니가타(新潟)』를 출간할 수 있었고, 『삼천리』에 연재되었던 『이카이노시집(猪飼野詩集)』은 1978년에 출간되었다. 이후 그는 『고아주시편』(1983), 『들판(原野)의 시』(1991), 『화석의 여름』(1998) 등의 시집을 지속적으로 출간하며 재일 한인 문단에서 가장 활발한 시작활동을 펼쳤다. 김시중에 대한 연구 및 논의는, 유숙자, 「민족, 在日 그리고 문학 - 在日 시인 김시중의 시세계」, 『한림일본학연구』 제7집, 2002), 유숙자, 「재일 시인 김시중의 시세계」, 『실천문학』 2002년 겨울호), 호소미 카즈유키, 「세계문학의 가능성 - 첼란, 김시중, 이시하라 요시로의 언어체험」, 『실천문학』 1998년 가을호), 마츠바라 신이치, 「김시중론」, 『홍기삼 편, 『재일한국인문학』, 술, 2001)이 있다.

년 가을호부터 1992년 봄호까지 총 10회에 걸쳐 번역하여 연재한 것이 전부이다. 그나마 재일 한인 시문학을 언급한 경우는 비평에서 기폐치량(磯貝治良)의 『재일세대와 시』(1991년 가을호)와 이미자의 『재일1세 시인과 나』(1994년 봄호)가 전부이다. 이런 점에서 『청구』는 재일 한인 시문학에 국한된 논의보다는 김달수, 김영희, 김종명, 남운지, 심광자, 안우식, 양영후, 원수일, 정윤희, 전춘주 등의 재일 한인 문학 전반에 대한 소개와 재일 한인 소설가들에 대한 평가에 치중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해방 이후 재일 한인 시문학은 허남기, 남시우, 강순, 김시중 등으로부터 김윤, 정영훈, 박일동, 김학렬, 정화수 등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이미 모국어를 잃어버린 재일 한인들이 일본어로 발표한 시도 있고, 여전히 우리말을 사용해 시를 쓰는 ‘재일본조선인문학예술가동맹(문예동)’ 그룹의 작품<sup>15)</sup>도 있다. 이러한 언어적 차이를 두고 우리 문학으로의 귀속 여부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실상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다. 그것이 일본어로 쓰여졌든 한국어로 쓰여졌든 한민족의 실생활과 고난으로서의 정체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이러한 민족정체성의 문제를 시를 통해 형상화하고자 한 것이라면 모두 ‘한민족문학’의 차원에서 동일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동안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에 갇혀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조총련 계열의 시문학 활동에 대해서는 더욱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 내에서의 그들의 시문학 활동을 무조건 북한 시문학의 아류로 평가하는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최근 발표되는 시문학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편향된 인식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문예동’ 내의 시인들의 모임인 ‘종소리 시인회’에서 발간하는 시동인지 『종소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예동 전 대표인 정화수가 중심이 되어 발간되는 이 시동인지는 2000년 1월 창간되어 현재 2006년 신년호까지 통권 25호를 발간한 시전문 잡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수록된 ‘문예동’의 시들은 과거 북한문학의 창작적 이념에 경도된

15) 이에 대한 연구는, 심원섭, 「재일 조선인 시문학에 나타난 자기 정체성의 양상」, (한국문학회 엮음, 『일본문화 접촉과 한국문학』, 앞의 책)과 홍용희, 「재일 조선 시와 조국의 노래」(『시작』, 2005년 가을호)가 있다.

도식주의적이고 친편일률적인 경향으로부터 상당히 탈피하였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조총련이 중심이 된 문학활동 역시 남북화해와 상생의 정신에 바탕을 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재일 한인 시문학 연구는 민단 계열과 조총련 계열을 통합하는 지점에서 새롭고 진취적인 논의가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 Ⅲ. 재일 한인 잡지 소재 비평문학의 현황과 의미

재일 한인 문학연구에 있어서 비평문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sup>16)</sup>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 재일 한인 문학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조차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담론화한 비평을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재일 한인 문학연구가 더욱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면 그에 따라 재일 한인 비평가들의 문학담론도 더욱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러한 연구의 시기가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를 무조건 기다리고만 있어도 안 된다. 비록 자료정리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해방 이후 재일 한인 비평가들의 활동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방향과 목표를 정립하는 토대를 구축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에서 『조선문예』, 『한양』, 『삼천리』, 『청구』에 수록된 비평을 목록화하고 그 대략적인 맥락을 짚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16) 재일 한인 문학비평에 대한 연구라는 뚜렷한 관점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한양』의 비평을 중심으로 한 비평사 연구가 상당한 관심으로 부각되기는 했다. 다만 이들 연구의 방향은 한국현대비평사의 연속성이란 관점에서 1960년대 문학비평의 빈틈을 메우고자 하는 시도로서의 성격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데 치중한다는 점에서 엄밀히 말해 재일 한인 문학비평 연구의 차원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허윤희, 박수연, 하상일, 김유중 등의 앞의 논문이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성과이다.

<표 3> 『조선문예』 소재 재일 한인 비평문학 현황

발표일자	비평가	비평제목
1947년 10월호(창간호)	이석주	조선민족문학의 전개
	김달수	혼미 속에서
	청야계길(靑野季吉)	조선작가의 일본어 문제
1947년 11월호	이석주	일본문학의 환경
	은무경	
1948년 2월호	송차영	춘향전과 이조말기의 서민정신(1)
	보고덕장(保高德藏)	민족적 비가
1948년 4월호	송차영	춘향전과 이조말기의 서민정신(2)
	이은직	조선인인 나는 왜 일본어로 쓰는가
	어당(魚塘)	일본어로 이루어진 조선문학에 대해
	덕영직(德永 直)	일본어의 적극적 이용
	김달수	하나의 가능성

『조선문예』에 발표된 비평문학 혹은 비평적 성격의 산문을 모두 정리하면 <표3>과 같다. 『조선문예』의 비평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성은 재일 한인 비평가들이 재일 한인 작가의 언어의식에 대해 아주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이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제의식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948년 4월호는 「용어문제에 대하여」라는 특집을 마련하여 조선인의 일본어 글쓰기와 일본어로 쓰여진 조선문학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 또한 『조선문예』는 조선의 민족문학의 성격에 대한 관심과 실용주의 정신에 바탕을 둔 조선 후기 문학의 현실주의적 정통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석주의 「조선민족문학의 전개」와 송차영의 「춘향전과 이조말기의 서민정신(1), (2)」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다. 그런데 『조선문예』에서 특별히 고민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청야계길(靑野季吉), 보고덕장(保高德藏), 어당(魚塘), 덕영직(德永 直) 등 일본어 이름을 쓴 비평가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필자의 판단으로 이들을 무조건 일본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한데, 비평의 내용적 측면에서 재일 조선인 비평가들의 관심과 상당히 일치하는 면이 있고, 당시 상당수의 문인들이 필명과 가명으로 활동한 점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 일단 이들 모두를 포함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힌다.<sup>17)</sup>

앞서 언급한 대로 『한양』은 국내의 비평사 연구자들에게 1960년대 한국문학의 전체적 지형을 이해하는 중요한 잡지로 평가되고 있다.<sup>18)</sup> 실제로 『한양』에는 김우중, 장백일, 임중빈, 구중서, 홍사중, 김병걸, 신동한, 임현영, 정태용 등 당시 국내평단에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상당수의 젊은 비평가들이 비판적인 관점에서 현실주의 비평을 지속적으로 발표했었다. 이런 점에서 『한양』의 비평은 재일 한인 비평문학의 성격을 이해하는 차원에서보다 오히려 1960년대 이후 국내 비평가들의 자유로운 비평적 글쓰기의 한 단면을 확인하는 데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문학비평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태도는 일단 유보하고 재일 한인 비평문학의 실상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만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한양』 소재 재일 한인 비평문학의 목록을 정리하면 <표4>와 같다.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한양』에 나타난 재일 한인 문학비평은 김순남, 장일우, 윤동호 등이 주축이 되어 활동했고, 나머지 비평가들의 경우 한국문학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이나 고전문학 작품이나 연극을 대상으로 한 몇몇 평론이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비평의 내용적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사실

- 
- 17) 2006년 1월 동경에서의 자료수집 및 인터뷰 기간 동안 직접 이은직 선생을 만난 부산대 이재봉 교수의 전언에 따르면, 『조선문예』의 필자 가운데 한사람인 송차영은 이은직 자신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내부 필자 가운데 누군가가 다른 이름으로 발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1947년 11월호에 발표된 「일본문학의 환경」 역시 목차에는 이석주의 글로 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송차영의 글로 되어 있는 편집상의 오류가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유추해볼 때 당시 동일 필자들이 여러 이름으로 글을 썼을 가능성을 전혀 도외시킬 수 없을 듯하다.
- 18) 1960년대 문학비평은 『한양』, 『산문시대』, 『비평작업』, 『청맥』, 『사계』, 『창작과 비평』, 『상황』, 『68문학』 등 4월 혁명 이후 새롭게 창간된 매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6년 백낙청에 의해 창간된 『창작과비평』과 『68문학』을 계승하여 1970년 김현 등의 주도로 창간된 『문학과지성』은, 전후비평가들과의 세대론적 인정투쟁을 통해 이들 1960년대 매체들을 소외시키거나 배제시켜 버림으로써 이후 한국비평사를 이 두 에POCH의 매체로 이원화하는 비평사의 단절을 조장하였다. 이런 점에서 1960년대 한국의 현실주의 비평사는 『한양』(1962)-『청맥』(1964)-『창작과비평』(1966)-『상황』(1969)으로 이어지는 비평사의 연속성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하상일의 앞의 박사논문을 참조할 것.



<표 4> 『한양』 소재 재일 한인 비평가 및 작품 현황

비평가	주요 작품	총 편수
경련	하이네에 관한 각서	1
김명진	시를 통해 본 4·19	1
김병삼	애국시가의 음미, 창가에 반영된 애국사상	2
김병옥	金笠시의 웃음과 슬픔, 민요와 전통의식, 민족의 존엄을 지킨 시가들	8
김성호	노예수첩(해설), 대설 「남」에 부쳐, 죽창을 다듬는 민중의 시인들	6
김순남	70년대를 사는 한국저항문학, 고발과 증언의 자세, 누가 한국문학을 옹호하는가, 리얼리즘 소고, 문학건설과 휴머니즘, 문학의 주체적 반성, 4·19와 한국문학, 생활의 미학, 사이비평론의 독성, 사실과 리얼리티, 순수와 참여의 대결, 시대와 시인의 사명, 시정신의 빈곤, 역사문학의 현대성, 주체의식과 한국문학, 한국문학과 농촌, 한국평단의 반성	99
김시형	문학의 고행과 새시대의 갈망	1
김학현	‘남’과 중생, ‘풀이’ 사상과 김지하, 한과 민족적 저항	3
박문상	민족문학소묘	1
박병근	현대시의 인간상	1
박일동	늙어 더욱 왕성해진 시정신	1
박태정	민중의 지향과 한국연극의 현황	1
신상민	문화와 전통, 언어와 사회, 한말 애국시가의 음미	5
신재현	시문학과 현대성	1
유라	메아리치는 애족의 절규	1
유영목	「수련」과 「속초행」에 대하여	1
윤동호	‘참여’ 재론, 시인과 패배정신, 조국통일과 한국문학, 현실투시의 각도	12
이순석	테마와 탐구의 논리	
장일우	농촌과 문학, 문학의 허상과 진실, 반성과 전망, 소월의 시와 자주정신, 순수와 참여, 시대와 신인작가, 참여문학의 특성, 한국 현대시의 반성, 현실과 작가, 현실과 작품의 논리, 시인 박두진을 논함	21
전석춘	‘차안의 가’를 읽고, 서평 『김지하시집』·『민중의 소리』	2
정영훈	사월의 시, 시인의 얼굴, 지상의 시와 지하의 시	3
최용진	정절음미	1
최익환	「금강」의 시간	1
하상두	민족연극 소고	1

상 제일 한인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한 비평은 전혀 없고, 오로지 한국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한 비평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을 제일 한인 비평가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의문으로 남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김순남, 장일우의 경우 『현대문학』, 『자유문학』 등 국내 잡지에도 비평을 발표했다는 점, 발표된 비평의 내용이 한국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이들이 정작 제일 한인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한 비평은 전혀 쓰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김순남, 장일우의 비평은 국내 필자가 가명이나 필명으로 발표한 것으로 추측하는데, 이 또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므로 지금으로서는 선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장일우는 주로 시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반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당시 장일우가 비판한 우리 시문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부분의 시가 우리의 생활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관념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고, 이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관념적이고 현실도피적인 취향에 너무 젖어 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그는 4월혁명을 노래한 시처럼 현대시는 알기 쉽고 명확하고 진실한 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무엇보다도 강조했다. 이러한 난해한 모더니즘 시 비판과 리얼리즘에 입각한 그의 시정신은 당시 김수영으로부터 상당히 중요한 문제제기로 평가되기도 했다.<sup>19)</sup> 이러한 문학적 관점에서 그는 민족의 생활공동체적인 감정, 즉 민족주체성을 형상화하고 있는 김소월과 현실의 리얼리티를 로맨티시즘의 역사적 상상력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박두진을 우리 시문학에서 가장 높이 평가해야 할 시인으로 보았다.

김순남 역시 현실도피적이고 폐쇄적인, 영원성과 순수성을 문학의 본질로 삼는 1960년대 한국의 보수적 문학관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고고한 상아탑에 머물면서 시대적 사명과 민족의 역사적 현실을 외면한 채 환상과 관념

19) “최근 2,3년 동안에 『한양』지를 통해 들어온 젊은 평론가들의 한국문학에 대한 공격을 나는 꽤 재미있게 읽었다. 그 중에서도 장일우씨의 시에 대한 비평은 나로 하여금 시에 대한 많은 반성을 하게 했다. 일본과 문학적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거리에서 오는 매력 이상으로 국내의 평론가들이 지연상으로 할 수 없는 솔직한 말을 많이 해 준 매력에 대해서, 나는 그의 숨은 공적을 높이 평가한다.” 김수영, 『생활현실과 시』, 『김수영전집2-산문』(민음사, 1981), 190쪽.

의 유포에 빠져 있는 전후작가들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이는 시대의 지성인으로서 문학인의 역할은 역사와 시대를 선도하는 엘리트로서의 책무와 참된 윤리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문학관을 분명하게 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 한국적 현실을 떠나서 한국의 참여문학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함으로써 문학과 현실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는 비판적 현실인식을 일관되게 견지하였던 것이다. 결국 그의 비평적 논리는 순수문학 비판과 참여문학의 논리를 더욱 정교화하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삼천리』에 발표된 재일 한인 문학비평은 강재언, 고사명, 김달수, 김대호, 김석범, 김학현, 안우식, 윤학준, 임전혜, 임호치, 장장길 등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특히 김학현이 13편, 윤학준이 9편 등을 발표함으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김달수, 김석범과 같은 작가들이 발표한 비평적 성격의 산문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정리하여 목록화하면 <표 5>와 같다. 그 외에 한국의 비평가들 가운데 『삼천리』에 비평을 발표한 비평가는 백낙청, 김윤식, 김운수, 성민엽, 임현영, 천이두 등이고, 일본의 비평가로는 고기웅치(高崎隆治)의 김사량에 대한 평가, 기쾌치량(磯貝治良)의 김태생의 작품에 대한 분석, 오무라 마쓰오(大村益夫)의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에 대한 연구를 주목할 수 있을 것 같다.

대체로 『삼천리』에 나타난 문학비평의 성격은 ‘김지하’를 가장 쟁점화하고 있는데, 이는 1960년대 한국의 정치사회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조국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을 김지하를 매개로 초점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재일 한인 문학비평가들은 이와 같은 『삼천리』의 기본적인 입장을 충실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김학현의 『민족문학에 대한 비망록』이나 강재언의 『김지하의 사상을 생각한다』, 김석범의 『김지하 ‘양심선언’을 읽고』 등의 비평을 발표했고, 그의 시와 시집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서평하는 기획에 지속적으로 문학비평을 발표하였다. 특히 김지하 담론은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와타 하루키(和田春樹) 등 일본 문학인들의 지대한 관심까지 이끌어냄으로써 통권 50호를 발간하는 동안 약 30편 정도의 김지하 관련 글들이 『삼천리』에 게재되는 절대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표 5> 『삼천리』 소재 재일 한인 비평가 및 작품 현황

비평가	비평제목	발표연도
강재언	김지하의 사상을 생각한다	1977년 여름호
	조국, 역사, 재일동포	1977년 겨울호
고사명	밀과 인간	1976년 겨울호
김석범	김지하 「양심선언」을 읽고	1975년 겨울호
	민족주의의 소산에 대해	1979년 겨울호
김달수	조선인의 발상법	1978년 겨울호
	잡지 「민주조선」 즈음	1986년 겨울호
김대호	식민지 지배하 조선의 영화운동	1986년 여름호
김학현	시와 중생과 조국 - 한용운	1976년 봄호
	한과 저항으로 살다	1977년 봄호
	하늘 바람 별의 시인 - 한과 저항에 살다	1977년 여름호
	빼앗긴 들의 한 편의 시	1977년 가을호
	님의 침묵 시대	1977년 겨울호
	30년대의 브나로드 운동	1978년 봄호
	슬픈 시인 김소월	1978년 여름호
	김수영의 시세계	1979년 봄호
	4월의 시인 신동엽	1979년 여름호
	빛은 옥중에서-김지하의 사상	1979년 가을호
안우식	분단시대 극복으로의 지향	1980년 여름호
	민족문학에 대한 비망록	1981년 봄호
안우식	김사량 「멸망하는 것으로의 애수」	1979년 겨울호
윤학준	여류시인 황진이 - 시조의 세계	1975년 창간호
	두 님을 모시지 않는다는 사상 - 시조의 세계	1975년 겨울호
	당쟁과 청학동 - 시조의 세계	1976년 여름호
	임진병자의 시대 - 시조의 세계	1976년 가을호
	왕족과 기녀의 노래 - 시조의 세계	1976년 겨울호
	정철의 행동과 문학 - 시조의 세계	1977년 봄호
	윤선도 투쟁과 시 - 시조의 세계	1977년 가을호
장장길	잔조의 시인들 - 시조의 세계	1977년 겨울호
	장두식의 죽음	1978년 봄호
임전혜	식민자 2세의 문학	1976년 봄호
임호치	장혁주론 - 15년 전쟁 하의 조선인 작가의 궤적	1983년 겨울호
장장길	(속) 최인훈의 소설- 한국문학을 보고 어느 기록	1975년 가을호
	이상의 아호- 한국문학을 보고 어느 기록	1977년 봄호
	행진하는 바보들- 한국문학을 보고 어느 기록	1977년 여름호
	육체에 속박된 인간- 한국문학을 보고 어느 기록	1977년 가을호

물론 김지하에 관한 담론은 『삼천리』만의 특화된 문제의식의 결과는 아니었다. 『한양』에서도 김지하 문제는 중요한 시대적 명제가 되어 『김지하전집』<sup>20)</sup>을 일문어로 번역하여 발간하고, 그의 시집에 대한 해설과 그의 문학세계를 재평가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김순남은 「민중의 함성, 민족의 절규」라는 4회에 걸친 연속기획으로 '4월의 아들 김지하 문학 재론'을 발표했고, 김학현의 「'풀이' 사상과 김지하」, 유라의 「메아리치는 애족의 절규 - 한양사간 김지하 전집」 등 김지하의 사상과 문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런 점에서 당시 김지하는 재일 한인 비평가들이 한국문학의 현실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삼천리』에 발표된 주요 평론으로는 김학현의 한용운, 윤동주, 김소월 등 한국 근대 시인들에 대한 분석과 윤학준의 고시조의 세계에 대한 정리, 장장길의 한국문학에 대한 비판을 담은 연재비평이 있었다.

『청구』에 발표된 재일 한인 문학비평은 김달수, 안우식 등이 주축으로 앞서 살펴본 어떤 잡지보다도 재일 한인 문학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펼쳤다. 특히 1994년 봄호(통권 제18호)의 경우 「재일조선인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기획특집을 마련하여 재일 한인 1세대에서부터 3세대에 이르는 재일 한인 문학의 흐름을 통시적으로 점검하는 문학사적 차원의 정리와 김학영, 이희성, 양석일, 이양지 등 당대 재일 한인 문학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 작가들의 문학세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김달수는 1993년 가을호부터 1995년 겨울호까지 총7회에 걸쳐 「나의 문학과 생활」이라는 글을 통해 재일 한인 문학가로서의 자전적 삶을 고백했고, 안우식은 1991년 겨울호부터 1993년 겨울호까지 총6회에 걸쳐 「조선문단의 속과 겉」을 연재한 것을 비롯하여 「비극의 북쪽 시인」, 「빨치산 소설과 실록」 등 분단이념에 가로막힌 한국문학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통일문학을 지향하는 비평의식을 드러냈다. 『삼천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구』 역시 일본 이름으로 발표된 비평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이 다룬 주제나 논점들을 살펴보면 귀화한 재일 한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20) 당시 <한양사>에서는 『김지하전집』을 비롯하여 양성우의 『노예수첩』을 발간했고, 『한양』 창간 10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 『한양』에 발표되었던 글들을 모아 논설집 『민족의 존엄』, 평론집 『시대정신과 한국문학』, 수필집 『초연곡(招燕曲)』, 한국현대시집 『메아리』 등을 발간하기도 했다.

&lt;표 6&gt; 『청구』 소재 재일 한인 비평가 및 작품 현황

비평가	비평제목	발표연도
김달수	나의 문학과 생활	1993년 가을호 ~1995년 겨울호
김영희	이양지	1994년 봄호
김중명	재일문학을 읽다	1994년 봄호
남운지	호풍과 장혁주(상)	1995년 여름호
	호풍과 장혁주(하)	1995년 가을호
	마츠무라 쇼후와 '조선유기'(상)	1995년 겨울호
문진궁	김학영과 재일2세인 나	1994년 봄호
심광자	양석일의 '광조곡'을 읽다	1994년 봄호
안우식	문학자의 복권	1989년 겨울호
	비극의 북쪽 시인	1990년 가을호
	빨치산 소설과 실록(상)	1990년 여름호
	빨치산 소설과 실록(하)	1990년 겨울호
	식민지시대의 재일조선인문학	1992년 가을호
	조선문단의 속과 겉	1991년 겨울호 ~1993년 겨울호
	환상의 이태준 구출작전	1995년 여름호
양영후	시인 윤동주의 동반자 송몽규	1992년 여름
원수일	이양지를 위해	1994년 봄호
이미자	재일 1세 시인과 나	1994년 봄호
정상진	소련조선인문단의 변천	1991년 여름호
정윤희	이회성문학의 노를	1994년 봄호
정율	해방 후의 김사랑	1990년 봄호
천춘주	소설 속의 '중군위안부'	1992년 가을호
	이양지 소론	1992년 가을호
	식민지문학에서 재일문학으로	1995년 여름호
	재일조선인문학론 서설2-고려인에서 코리안으로	1995년 가을호
	제1세대문학의 약도	1994년 봄호
최석의	방랑시인 김삿갓의 시와 생애	1995년 봄호

진다. 특히 5편의 비평을 발표한 천춘주(川村湊)의 경우 「소설 속의 '중군위안부」, 「식민지문학에서 재일문학으로」 등의 글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글의 내용과 성격으로 볼 때 순수한 일본인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따라서 일단 그의 글도 재일 한인 비평문학으로 포함시켰음을 밝힌다. 『청구』에 발표된 재일 한인 문학비평 및 비평가 현황은 <표 6>과 같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문예』, 『한양』, 『삼천리』, 『청구』를 대상으로 해방 이후 재일 한인 잡지 소재 시문학과 비평문학의 현황과 발표된 작품들의 문학사적 의미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네 잡지는 재일 한인 사회에서 194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에 각각 창간되었다는 점에서 재일 한인 문학을 통시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데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네 잡지 편집진들의 면면에서나 중심 주제에 있어서 동일한 지향성이 두드러지게 부각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무조건 연속성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듯하다. 특히 『한양』의 경우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이십여 년의 기간동안 발간된 잡지임에도 불구하고 『조선문예』, 『삼천리』, 『청구』가 재일 한인 문학과 역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펼친 것과는 달리 한국 내의 역사적 상황이나 문학적 현실에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다. 게다가 언어의식에 있어서도 다른 세 잡지에는 재일 한인 작가들이 일본어로 글을 발표하고 일본의 지식인들에게도 개방적이었던 데 반해, 『한양』은 창간에서부터 중간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글로 발표되었고 일본인들의 글도 거의 섞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양』을 일본 동경에서 발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일 한인 잡지라고 명명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남는 게 사실이다. 발행 및 편집이 일본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오히려 『한양』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예지이자 정론지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실제로 1960년대 이후 한국의 문단지형이 자유롭게 정론을 펼치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한양』에 글을 발표한 상당수의 문인들이 진보적이고 참여적인 성향의 젊은 시인들과 평론가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문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 게 아닐까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현재로서는 가정일 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 즉 당시 발행인과 편집인을 겸했던 김인재와 <한양사>의 사장이면서 실제적인 발행인 역할을 했던 김기심 등이 실제로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 한인들이었으며, 김운을 비롯한 주요 필자들의 상당수가 재일 민단 소속 비판적 지식인들

이었다는 점에서, 『한양』을 국내 잡지로 판단할 만한 현실적 근거가 빈약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일단 유보하고 네 잡지 모두가 재일 한인들의 정체성 확립에 누구보다도 앞장섰고 한국 내의 정치사회적 현실에 대한 재외교포로서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다는 점에서 공통된 인식을 지녔다는 점을 무엇보다도 주목하였다. 결국 이 네 잡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성을 지니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해방 이후 재일 한인 사회의 문화적 실상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실증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통시적인 접근도 긴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네 잡지를 통해서도 확인하기 어려운 재일 한인 문학의 결핍된 지점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해방 이후 조총련 계열 문학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부분이다. 이러한 결핍은 우리의 역사적 불구성에서 비롯된 재일 한인 사회의 분열과 대립의 결과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재일한인 문학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조총련 계열의 문학활동은 이념적 경직성과 도식적 서술방식 등 북한문학의 이념적·미학적 노선을 그대로 추종한 명백한 한계를 드러낸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단 계열의 문학이 모국어를 잃어버린 문학이었던 것과는 달리 지금까지도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켜내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민주조선』, 『문학예술』 등으로부터 최근에 발간된 『겨레문학』, 『종소리』 등에 이르기까지 조총련의 하부조직인 ‘재일본조선문학가예술동맹(문예동)’의 작가들이 중심이 된 문학활동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 측면에서 재일한인 문학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비로소 ‘한민족문학’으로서의 재일한인 문학의 모습은 그 전모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목표로 한 연구의 기초적이고 예비적인 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재일한인문학, 재일한인잡지, 조선문예, 한양, 삼천리, 청구, 재일한인시문학, 재일한인비평문학, 1960년대 문학비평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조선문예』 1947년 10월호(창간호), 1947년 11월호, 1948년 2월호, 1948년 4월호.

『한양』 1962년 3월호~1984년 3·4월호(통권 제177호)

『삼천리』 1975년 봄호~1987년 여름호(통권 제50호)

『청구』 1989년 여름호~1996년 봄호(통권 제25호)

### 2. 단행본 및 논문

김종희 편, 『한민족문화권의 문학』, 국학자료원, 2003.

유숙자, 「재일 시인 김시중의 시세계」, 『실천문학』 2002년 겨울호, 134~140쪽.

이명재 외,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국문화사, 2004.

이현홍, 「『한양』 소재 재일 한인문학의 연구 방향과 과제」, 『한국민족문화』 제25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5, 101~122쪽.

하상일,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2005.

한국문학회 엮음, 『일본문화 접촉과 한국문학』, 세종출판사, 2004.

한국문학회 엮음, 『해외문화 접촉과 한국문학』, 세종출판사, 2003.

홍기삼 편, 『재일한국인문학』, 솔, 2001.

홍용희, 「재일 조선시와 조국의 노래」, 『시작』 2005년 가을호, 220~231쪽.

<Abstract>

The Aspects of the Korean-Japanese's Poetry  
& Literature Criticism its Significance  
- the Focusing on *Chosunmunje*, *Hanyang*,  
*Samchunli*, *Chungku*

Ha, Sang-Il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sent the Aspects of the Korean-Japanese's Poetry & Literature Criticism its significance, in the Focusing on *Chosunmunje*(『조선문예』), *Hanyang*(『한양』), *Samchunli*(『삼천리』), *Chungku*(『청구』). This magazine that was the Korean-Japanese's Magazine ever published in Japan. This article will be concluded by summarizing this Magazine's critical discussion and mentioning in the Poetry and Literature Criticism.

The *Chosunmunje* was a magazine that had prepared a corner stone for the literature of Koreans who lived in Japan since liberation. Poets like Nam-ki Hur, Soon Kang, and Shi-Woo Nam and critics including Dal-Soo Kim and Suk-Joo Lee acted for the magazine. In particular, they concentrated on an understanding of language of Koreans in Japan; thus, they aimed to create the identity of Korean authors in Japan.

The Poetry and Criticism of *Hanyang* unfolded engagement, by focu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iterature and reality, with the spirit of April Revolution. The purity insisted that true literature has an interval with reality, but it made an irony to do most politic literature by adjoining the conservatism of those days' politic power. Han-Yang think of the dualism of the purity as rhetoric with deception and falsehood, and emphasize that literature has a clear recognition to reality. The logic and property of

engagement, which acquired the eye to see a reality as an objective situation, was an spirit of criticism which led Han-Yang with coherence.

The *Samchunli* was a magazine that revealed a positive and objective intere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history of Chosun, culture of Chosun, and life of Koreans in Japan. Specifically, there was a critical introspection on the Korean literature in the magazine by dealing with Jee-Ha Kim's literature. And we need to focus on poems of Shi-Jong Kim and Chul Lee.

The *Chungku* was a magazine that played a role of bridging generation with generation for securing the continuance of generations in the Korean society in Japan as a communication channel for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of Koreans in Japan. Accordingly, it contained numerous articles and literary works that revealed an intensive interest in literature of Koreans in Japan.

Key Words : Korean-Japaneses's Literature, Korean-Japaneses's Magazine, Chosunmunje, Hanyang, Samchunli, Chungku, Korean-Japaneses's, Poetry-Literature, Korean-Japaneses's Criticism-Literature, Literary Criticism in the 1960s